



명찰 없는 선교사

크리스티 어레이브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무서운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 그 선생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이였다. 하루는 우리 교회의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후기 성도 선교사에 대한 그분의 질문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답해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분과의 대화가 불편해지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러다, 물문경에 선교

선생님께
물문경 한 권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사업에 대한 몇 구절을 표시해서 선생님에게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무서웠지만, 그 생각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성신의 속삭임이며 그 느낌을 따라야 함을 알고 있었다.

두 달 정도 지나서, 나는 결국 선생님께 드릴 물문경을 준비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물문경이 내 가방 속에서 나오려고 안달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겨울 방학을 시작하는 학기 마지막 날이었다. 물문경을 선생님께 건네 드린



lds.org/go/6176.
#futuremissionary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본다.

그 삼 초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떨리던 순간이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등교한 첫날, 나는 그분의 교실을 지나가게 되었지만, 두려운 마음에 차마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분은 내게 메시지가 적힌 카드 한 장을 주셨다. 나는 복도에서 그 카드를 읽어 보았다. 선생님은 카드에, 물문경에서 내가 표시한 구절들을 “차근차근” 읽어 보았으며 내가 믿는 신앙의 관점에서 몇 가지 타당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적으셨다.

이제 나는 복음을 나누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이제 곧 선교 사업을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렌다.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어린이

선교사의 봉사

선교사들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부름을 받지만, 사람들을 위한 봉사도 하지요. 선교사들을 위해 아래 왼쪽에 있는 도구들을 오른쪽 그림에서 찾아 주세요!

